

오늘의 유머

■ 누가 했는데 안 서?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시내로 나갔다. 어느 커피숍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건너편 자리에 아하게 웃을 입은 여자가 섹시한 포즈로 담배를 피고 있는 것 아닌가.

너무 예뻐 함참을 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피던 담배를 던지니 담배가 세로로 딱 서는 것 아닌가.

우연이겠지, 지나쳤는데 잠시 뒤 그 여자가 다시 담배를 물고는 몇 번 빨더니 담배를 던졌다.

그러니 또 담배가 세로로 딱 서는 것 아닌가.

너무나 신기해 난 그녀에게 가 물어보기로 했다.

“저, 아까부터 지켜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담배를 그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빠는 데 지깅게 안 서겠어?”

■ 황당한 일

공중 화장실에서 큰 일을 보고 있는데 옆 칸에 있는 사람이 말을 걸어 왔다.

“안녕하세요?” 무안하게 큰 일 보면서 민망하게 무슨 인사?

휴지가 없어 그러는 게 싫어 대답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대답을 했는데 별 반응이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시 말을 건네는 그 남자.

“잠실 식사는 하셨어요?”

화장실에서 밥 먹은 얘기를 왜 하지? 미치겠네.

예의바른 나는 또 대답했다. “네, 저는 먹었습니다. 먹은 하셨어요?”

잠시 뒤 옆 칸 사람이 하는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죄송하지만 전화 끊겠습니다. 옆에서 이상한 사람이 자꾸 말을 걸어 서요”

▼ 드라이브를 즐기는 게



<대시인사이드>

사진기자의 땀 짓

“드실래요 할아버지?”



“맛있지요?” ‘드실래요 할아버지?’ 하지만 우리도 그냥 먹는 거예요. 광주시 동구 동명동 중앙도서관 앞 화원가를 걸다가 편의점 한쪽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중학생들을 봤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대견한 듯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밥보다 라면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 때문에 엄마들의 고민도 무척 많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중학생들, 학원 쫓아다니느라 방학 빼앗긴 지 오래입니다.

학원 쉬는 날이 방학이라네요. 또 과거에는 엄마 손에 이끌려 다녔지만 이제 엄마가 말하기 전에 이곳저곳으로 잘 옮겨다닙니다. 그래서 끼니도 그들끼리 때운다고 하네요. 물론 엄마들 한숨은 더 커졌지요. 마음껏 뛰어 놀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못 먹어 체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오죽했으면 운동장 한 바퀴 제대로 뛰기 힘들어 100m달리기를 80m로 줄였겠습니까. 라면 먹을 때만이라도 공부생각 잠시 접어두고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뉴스퀴즈 47·48회 양금순씨 1등



광주일보가 실시한 47·48회 뉴스퀴즈 추천 결과, 양금순씨가 1등에 뽑혔습니다. 양씨는 29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열린 상품 추첨식에서 진공 청소기의 주인으로 당첨됐습니다. 47·48회 뉴스 퀴즈에는 업서와 편지로 301명이 응모했으며, 무작위 추

출 방식으로 정답자 2명을 뽑아 순서에 따라 등수를 정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홍보 사원 박선영씨가 추첨을 했으며, 공정한 추첨을 위해 광주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김형선 경장, 박수범 순경이 임회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 ▲양금순·광주시 남구 방림동 2등 ▲문미영·광주시 남구 주월동

Go board game diagram with numbered stones and a '가' label.

Go board game text: 제1회 광주시 교육감비서인기 바둑대회 초등 최강부 결승전. 포석의 기묘에 선 장면인데, 강지수군은 흑 27로 뛰어 우변을 키운다. 이 수는 우변의 백 모양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수. 그러나 우변은 백이 손을 빼도 뽀족한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흑 27로는 '참고도1'의 흑 1, 3을 선수하고 5로 뛰어 좌변을 키울 찬스였다. 그런가 하면 박은찬군이 즉각 백 28로 깎아간 수도 성급한 수였다. 이 수로도 역시 '가'에 두어 좌변 흑을 견제하면서 상변을 키워야 했다. 강군이 흑 29로 반발하면서 국면이 급박하게 흘러가기 시작한다. 이 수는 백이 '참고도'의 1로 받아주기를 기대한 것. 그러면 4로 공격할 심산이다. 그러자 박군도 백 30으로 반발하고 38로 막아 초반부터 기세다름이 치열하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유재성 3단, 전자랜드배 4강 진출. 유재성 3단이 최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백호부 8강전에서 안달훈 7단을 304수 끝에 흑 반집으로 꺾고 4강에 진출했다. 두 기사는 이 대국에서 초읽기에 몰리면서 치열한 패싸움을 펼쳤으나, 백 대마를 살려주는 대신 큰 끝대기를 차지한 유 3단이 역전승을 거뒀다. 유 3단은 양재호 9단을 제압한 양진 7단과 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한다. 이 대회 제한시간은 각 10분 40초 초읽기 3회이다. 백호부는 만26~50세 이하 기사들이 출전해 토너먼트로 우승을 가리며, 우승상금은 700만원(준우승 3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뉴스퀴즈

49. '라이언 킹'으로 불리는 이 선수가 한국선수는 네번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가 됐다. 이 선수는 최근 소속팀인 포항 스틸러스와 미들즈브러가 이적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축구종가' 잉글랜드에서 제 2의 축구 인생을 꾸리게 됐다.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영표(토트넘)·설기현(레딩)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네 번째입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이동국 ② 박주영 ③ 이천수 ④ 조재진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본대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30일(음 12월 12일 甲子)

- 子 36년생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으니 분수를 지키라. 48년생 가도안정에 힘을 쓰라. 60년생 친인척의 변으로 걱정이 생길 수도 있다. 72년생 이성이 보다 친구를 만나라. 84년생 남을 놓이면 자신도 울라간다. 행운의 숫자: 15, 45
丑 37년생 지속적인 안정이 있고 재복으로 가도안정을 찾는다. 49년생 집안은 편안하고 집 밖은 시끄럽다. 61년생 부부사이에 이해있는 대화와 자녀를 살펴봐라. 73년생 이웃을 살펴봐라. 85년생 개인의 절약은 국가 경제로 통한다. 행운의 숫자: 20, 45
寅 38년생 精神의 不便이 발생할 수 있고 부부갈등이 연발할 수 있다. 50년생 모든 일에 불행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최선을 잘라라. 62년생 방탕함은 남자가 만들어야 효과가 있다. 74년생 계획한 모든 일은 잘 이루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21, 16
卯 39년생 친구 및 가까운 인사들로부터 기만을 당하거나 금전피해가 있다. 51년생 허황된 문서만 조심하면 대운은 있다. 63년생 만나는 사람마다 오래가지 못하니 선택을 잘라라. 75년생 세상에 극복되지 않는 어려움은 없다. 행운의 숫자: 05, 31
辰 40년생 어려워 보여도 쉽게 해결된다. 52년생 수하인과의 동맹은 절대 금라라. 64년생 건강과 위장의 평안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아보라. 76년생 새 문서를 친구가 가져오나 자세하게 검토해야 하면 실수는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08, 25
巳 41년생 가득 찬 창고도 모두 내 것은 아니다. 53년생 정은 있으나 만나지 못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65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내실 있게 결정된다. 77년생 보기 좋은 떡이 먹어도 좋다. 결과 속이 꽉 찬 결과가 있을 수다. 행운의 숫자: 17, 37
午 42년생 옛일이 나를 괴롭히나 큰 일은 아니다. 54년생 외부의 일이 가정까지 소란사로 변하니 세심하게 살펴봐라. 66년생 처음에는 고통스러우나 나중은 편리라. 78년생 착실한 진심으로 꼭 성취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07, 34
未 43년생 세 번 생각하고 말하면 마음은 없으리라. 55년생 옛 감정은 빨리 털어버리면 새로운 점이 솟아난다. 67년생 말다툼이 송사로 비화 될 수도 있으니 빨리 감정을 정리하라. 79년생 애인이 끝난하니 등기를 복돋우라. 행운의 숫자: 20, 40
申 44년생 차 조심 사람조심. 56년생 미운 사람과 좋은 사람이 생긴다. 68년생 아늑한 보금자리나 불편한 사람이 같이 있다. 80년생 자신과 가정, 가정과 직장사이에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행운의 숫자: 09, 26
酉 45년생 협조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일을 추진해준다. 57년생 직장을 포로로 잡은 격이니 큰 실수가 있을 수다. 69년생 자기의 돈을 쉽게 사라진다. 81년생 독신자는 새로운 연인을 만날 기회가 생기니 준비하고 있으라. 행운의 숫자: 14, 16
戌 46년생 재가 순조롭고 주변의 도움으로 신사가 발생한다. 58년생 하루가 편안하니 주위를 둘러봐라. 70년생 자녀가 떨어져 살아야 할 경우가 생기지만 좋은 일이다. 82년생 고개를 숙여서 땅을 한번 갈아보라. 행운의 숫자: 12, 38
亥 47년생 협조자는 있으나 결과는 반반이다. 59년생 멀고 긴 여행으로 신뢰를 잃었으니 주변인들에게 믿음을 쌓으라. 71년생 과욕만 없으면 결과는 좋으리라. 83년생 보고 싶은 사람이 찾아오니 준비하고 있으라. 행운의 숫자: 03, 29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더마플라스트 밴드. 상처를 딱지없이 깨끗하게!! DermaPlast.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Table with 4 columns: English, Korean, Chinese, and Japanese. Each column contains a phrase and its translation/usage examples. Includes contact info for Donga University and other institutions.